

보험산업의 새로운 바람,

인슈어테크

I n s u r t e c h

인슈어테크는 가장 보수적인 산업인 보험산업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활용해서 파괴적인 혁신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글_배경훈 한양대학교 교수

보험 청구의 불편함 해소

인슈어테크(Insurtech)는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이라는 단어의 조합이다.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조합인 핀테크(Fintech)를 떠올리면 인슈어테크가 무슨 의미인지 짐작이 간다. 금융업에서 가장 보수적인 산업인 보험산업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활용해서 파괴적인 혁신을 이루는 것을 인슈어테크라 할 수 있다.

보험 청구 절차의 불편함은 현재 보험 산업이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이다. 번거로운 보험 청구 절차로 인해 피보

험자들이 보험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이는 보험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보험의 보상보다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인슈어테크는 이 문제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해결한다. 스마트 컨트랙 기반 보험 계약은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피보험자가 보험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예를 들면, AXA의 비행지연 보험상품 ‘피지(Fizzy)’는 비행기가 2시간 이상 지연되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항공사로부터 입수하여 피보험자에게 비행 지연으로 인한 보상금을 지불한다. 이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는 따로 보험금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개인의 행동에 맞춘 새로운 보험

또한, 인슈어테크는 빅데이터 에널리틱스를 활용하여 보험산업에 혁신을 만든다. 기존의 보험사들이 차량의 텔레매틱스*를 활용하여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자동차 보험료에 반영을 하듯이, 인슈어테크 스타트업들은 Fitbit, Apple Watch 등 웨어러블을 통해서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된 행동을 추적하고 개인 맞춤형 보험료를 산출한다. 개인 중심으로 수집된 대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의 행동에 맞추어 새로운 보험이 설계될 수 있다.



개인 중심으로 수집된 대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의 행동에 맞추어 새로운 보험이 설계될 수 있다.

또한 인슈어테크는 기존 보험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 플랫폼은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과 소셜 네트워킹의 개념을 통합하여 P2P(Peer-to-Peer) 방식으로 위험을 보장해서 보험료를 낮춘다.

비용은 줄이고 위험은 낮춘다

P2P보험은 같은 위험을 갖는 개인들이 그룹을 만들고 보험료를 모아서 위험에 대비하는 위험 공유 네트워크다. 유사한 위험에 노출된 개인들이 그룹을 만들고, 사고가 발생하면 그룹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다른 팀원들은 청구된 보험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팀원들이 청구된 보험을 인정하면 각 팀원들은 지분에 따라 직접 보험금을 지불한다. 이와 같은 P2P 보험은 소규모 그룹만 형성이 되면 위험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보험 설계가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다.

국내 보험사들은 역마진 쇼크로 인해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초저금리로 인해 보험사들의 자산 운용수익률이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부채인 보험료 평균이율보다 떨어진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장기화 된다면 국내 보험사들은 2000년 전후 금리 역마진으로 인해 파산한 일본 보험사들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기존 보험 산업에 파괴적인 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다. 인슈어테크에서 그 혁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 텔레매틱스

무선통신과 GPS 기술이 결합하여 자동차에서 위치 정보, 안전 운전, 오락, 금융 서비스, 예약 및 상품 구매 등의 다양한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의미 (출처: 위키백과)